

열려라 지갑, 되살아라 내수... 황금연휴 보복소비 '폭발'

교외 위치 아울렛 가족단위 북적 프리미엄아울렛 매출 60% 급증 백화점선 명품·가전 매출 쑥쑥

가정의달 특수에 가족선물 불티 언택트에 만남 대신 선물로 대체 야외용품보다 홈·건강용품 인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했던 지갑이 5월 황금연휴를 기점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올 1분기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은 최저 매출을 찍었다. 그러던 중 지나누 4월 30일(석가탄신일)부터 이어진 황금연휴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심리가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아울렛에 가족 방문객 몰려

롯데·현대 등 주요 아울렛 매출은 지난해 5월 연휴 기간(지난달 30일~이달 3일)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최대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외에 위치한 아울렛은 올 들어 최대 특수를 누렸다. 연휴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가 맞물려 가족 단위 방문객이 교외에 있는 아울렛으로 향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김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의 매출 증가율은 61.8%에 달했다.

상품 카테고리별로 인기를 끈 것은 명품과 가전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명품은 35%,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대형마트 완구판매장에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선물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가전은 39% 매출이 증가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연휴 기간 명품 매출 증가율이 22%에 달했다. 가전이 포함된 리빙용품 매출도 21% 늘었다. 이마트에 따르면,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 매출이 25% 급증했다. 노트북, 태블릿 PC 등 디지털 가전 매출도 12% 증가했다.

◆가정의 달 특수·보복소비에 명품 신장 온라인물 매출도 늘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가정의 달 프로모션 기간(20~28일)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기 선물 품목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위한 어버이날 선물 매출이 68% 느는 등 매출 신장률이 눈에 띄었다. 어린이날 선물 역시 전년 동기 대

비 18% 늘었다. 선물 품목들은 야외 나들이에 필요한 것보다는 집에서 자주쓰기 편한 것, 그리고 건강 관련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날 선물의 경우 게임기 매출이 105% 급증했고, 노트북과 PC도 각각 50%와 40% 더 팔렸다. 어버이날 선물은 건강·의료용품 매출이 170% 늘었다. 특히 안마기와 같은 건강 측정용품(113%)과 눈 건강용품(58%)이 인기가 많았고, 호흡·수면건강용품은 매출이 7배(634%)나 뛰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자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대신 명품이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황금연휴 나흘째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이번 연휴 직전 열흘간 신세계백화점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와 비슷한 황금연휴가 있었던 2017년과 상반된 매출 추이를 보였다.

2017년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며 여행 가방과 수영복이 인기가 많았지만 올해는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연휴를 위해 준비한 여윳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관련 장르는 지난해보다 27% 신장했다.

◆면세품, 일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여행 수요가 없어 비랑 끝에 몰렸던 면세점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에서 재고 면세품을 백화점·아울렛 등 일반 유통매장에서 한시적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면세품이 일반 유통채널에서 팔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보유 상품 중 일부를 수입 통관을 거쳐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입고된 지 6개월이 지난 제품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 업계에서 약 1600억원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비자들은 면세점 재고 상품을 일반 오프라인 유통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브랜드와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 훼손, 매장 내 상품과의 중복 등을 우려해 샤넬, 에르메스 등의 주요 명품은 이번 할인 판매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해외여행 못간 대신 명품가방이라도... '인산인해'

황금연휴동안 명품 매출 35% 증가 억눌렸던 소비 심리 명품으로 달래 골프웨어·아웃도어 매출 신장 견인

일반 패션은 연휴 특수 못 누려 백화점 패션 매출 되레 떨어져



황금연휴인 지난 2일, 인천의 한 아울렛의 해외 스포츠웨어 매장앞에서 고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었다. /조효정기자

석가탄신일부터 6일간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팬데믹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명품구매를 통해 보상심리를 채우려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소비위축이 이번 황금연휴를 계기로 어느 정도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 패션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5월 관련 업계에 따르면 '4달 5초'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일부 명품구매로 이어졌다. 상품군마다 매출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값비싼 해외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많았지만, 일반 패션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롯데쇼핑 교외형 아울렛 6개 지점의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명품 매출은 지난해 연휴 기간 나흘간인 5월 3일부터 6일과 비교해 35% 증가했다. 동

기간 신세계백화점은 22.1%, 현대백화점은 21.7%, 롯데백화점은 19%의 명품 매출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일반 패션 상품의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신세계 백화점의 여성 패션과 남성 패션 매출신장률은 각각 11.4%, 8.9% 하락했다. 롯데백화점 역시 여성 패션, 남성 패션 매출이 각각 15%, 3% 하락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여성 패션 매출이 1.3% 줄었다.

예외로, 도심 속 인파를 피한 야외활동이 증가면서 일부 골프웨어와 아웃도어 의류 매출은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의 연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골프웨어 매출 신장률은 21.9%를 보였으며, 신세계 백화점의 아웃도어의 연휴 매출신장률도 21.8%로 나왔다.

황금연휴 기간 최근 명품과 아웃도어 매출이 상승세를 탄 것을 고려한 이번

트도 기획됐다. 롯데홈쇼핑은 황금연휴 기간 패션 인기 상품 구매 시 적립금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홀리데이 쇼핑' 특집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명품 수요가 증가한 점을 감안해 5월 2일부터 8일까지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등 인기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7%의 카드 할인을 제공하는 '언택트 럭셔리샵'을 TV홈쇼핑을 통해 진행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대대적인 쇼핑 행사로 침체한 소비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고객 구매성향 변화, 최근 3년간 5월 황금연휴 동안 매출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인기 상품을 선정했다"면서 "근거리 외출에 대한 고객 니즈를 고려한 '스포츠웨어' 및 '잡화' 등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업계관계자는 "황금연휴 기간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억눌려있던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보상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휴가 어려워진 패션업계의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변화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상품을 기획하고,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매장 방역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코로나19 종식 아냐 국민 모두 방역 주체"

박능후, 거리두기 지속 당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리두기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문을 닫았던 시설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행사와 모임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내일부터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게 된다"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